Ein Heldenleben, Op. 40

- □□

정보

Richard Strauss: Ein Heldenleben

개요
곡명: Ein Heldenleben (A Hero’s Life), Op. 40
작곡가: Richard Strauss (1864–1949)
작곡 시기: 1898년
장르: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시
초연: 1899년 3월 3일 Frankfurt Museum concert에서 작곡가 지휘
헌정: Willem Mengelberg와 Concertgebouw Orchestra
초판: F.E.C. Leuckart, Leipzig, 1899
소요 시간: 자료와 연주에 따라 대략 40–50분

IMSLP: Ein Heldenleben, Op. 40 (Strauss)

Wikipedia: Ein Heldenleben

Richard Strauss의 Ein Heldenleben은 여섯 표제적 구역을 중단 없이 이어 가는 단악장 교향시다. Der Held 에서 시작한 영웅의 주제는 적대자, 동반자, 전투, 평화의 업적, 마지막 은퇴와 완성을 거치며 변형된다. 독주 바이올린, 무대 밖 트럼펫, 여덟 대의 호른과 다수의 자기인용이 거대한 관현악 흐름을 개인적 초상과 공적
영웅담 사이에 놓는다.

여섯 구역과 하나의 흐름

통용되는 구역명은 Der Held (영웅), Des Helden Widersacher (영웅의 적대자들), Des Helden Gefährtin (영웅의 동반자), Des Helden Walstatt (영웅의 전장), Des Helden Friedenswerke (영웅의 평화로운 업적), Des Helden Weltflucht und Vollendung (영웅의 세상에서 물러남과 완성)이다. 이 명칭들은 서로 독립된 악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곡은 첫 구역 뒤에 긴 정지가 한 번 나타날 뿐, 주제와 음색이 계속 이어지는 통주적 구조로 진행한다.

후대 악보 가운데에는 Strauss의 요청에 따라 이 구역명이 표시되지 않은 판본도 있다. 독일어 제목은 연주 순서를 설명하는 구조 표지로 사용되며, 악보의 별도 번호나 장면 지시와는 구별된다. 이 큰 흐름을 확대된

소나타 형식 또는 소나타 론도로 읽는 분석도 있으며, 여섯 구역의 대비와 재현 기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영웅의 등장과 적대자의 말투

첫 구역에서는 호른과 첼로가 E♭ 장화음을 거의 세 옥타브에 걸쳐 상승시키며 영웅의 넓은 몸짓을 세운다.
높은 현과 목관의 서정적 선율이 이어지면서 , 영웅 주제는 행진 신호만이 아니라 긴 호흡의 노래로도 확장된다. 트럼펫의 화음 뒤에 놓이는 긴 정지는 곡 전체에서 가장 뚜렷한 침묵으로, 첫 구역의 선언과 다음 충돌 사이에 경계를 만든다.

Des Helden Widersacher 에서는 반음계적 목관과 낮은 금관이 서로 다른 음역에서 짧은 동기를 내놓는다. 이 구역을 Strauss를 공격한 비평가들의 풍자로 읽는 전통이 있으며, 튜바와 테너 튜바의 어두운 동기는 그
해석과 자주 연결된다. 음악적으로는 여러 관악 성부가 동시에 반론을 제기하듯 영웅 주제의 방향을 흔들고, 뒤이어 금관 팡파르가 그 소란을 밀어낸다.

동반자의 독주와 관계의 초상

세 번째 구역 Des Helden Gefährtin 의 중심에는 독주 바이올린이 있다. 독주자는 반주를 거느린 긴 카덴차와 세밀한 연주 지시를 거치며 새로운 동기를 제시하고, 낮은 현과 목관 ·금관의 짧은 응답이 그 말을 둘러싼다. 독주 바이올린이 협주곡처럼 전면에 나오면서 영웅의 공적 언어가 사적인 관계의 대화로 바뀐다.

Strauss는 이 동반자를 아내 Pauline de Ahna의 초상으로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겼으며, 영웅을 작곡가
자신과 일대일로 동일시할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다. 독주부의 변덕스러운 도약과 관현악의 응답은 특정
인물의 전기를 그대로 설명하기보다 , 영웅담 안에 친밀한 관계와 긴장을 끌어들이는 음악적 장치로 기능한다.

전장의 공간과 음향

Des Helden Walstatt 는 작품의 첫 대규모 발전 구역이다. 타악기와 독주 트럼펫이 앞선 동기를 변형해 밀어 올리고, 무대 밖 트럼펫의 팡파르가 무대 위 금관의 응답과 다른 방향에서 들린다. 이 배치는 전투를 단일한
음향 덩어리로 만들기보다 , 서로 다른 위치의 신호가 관현악 안에서 충돌하도록 구성한다.

New Jersey Symphony의 프로그램 해설은 이 구역의 지속적인 타악기 사용이 작품의 수용에서 논쟁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전투는 소음의 절정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영웅 주제가 변형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형식적 발전부이기도 하다. 전투 뒤에 이어지는 트럼펫의 노래하는 선율은 다음 구역으로 넘어갈 통로를 만든다.

평화의 업적과 자기인용

Des Helden Friedenswerke 에서는 하프, 바순, 잉글리시 호른, 현악기가 전투와 다른 서정적 음색을 만든다. 이 구역에서 Strauss는 자신의 이전 작품을 여러 차례 인용한다. Guntram, Don Quixote, Don Juan, Tod und Verklärung, Macbeth, Also sprach Zarathustra,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의 재료가 한

작품 안에서 다시 배열되며, 영웅의 업적은 작곡가가 지나온 음악적 경로를 회고하는 행위와 겹친다.

자기인용은 이 곡을 예술가적 자화상으로 읽게 하는 강한 근거지만, 인용의 존재만으로 프로그램을 하나의 전기로 확정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시기의 음악이 현재의 화성 ·리듬 ·관현악 색채로 다시 쓰이면서, Friedenswerke 는 전투 이후의 평화이자 과거 작품을 현재의 주제 안에 편입하는 재현부처럼 작동한다.

은퇴와 완성, 그리고 영웅의 의미

마지막 Des Helden Weltflucht und Vollendung 에서는 앞선 적대자의 동기가 잠시 돌아온 뒤, 잉글리시
호른의 목가적 선율과 E♭의 평온한 주제가 긴 호흡을 만든다. 독주 바이올린 구역에서 예고된 선율이 이곳에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고, 마지막 금관 팡파르가 처음의 몸짓을 변형해 조용한 종결로 이끈다.

Strauss는 프로그램 문구에서 이 영웅을 특정한 문학적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위대하고 남성적인 영웅주의의 일반적이고 자유로운 이상 ’으로 설명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동시에 이 작품을 음악적 자화상으로 소개하면서 , 진지한 영웅담인 Ein Heldenleben과 풍자적인 Don Quixote를 서로 대응하는
작품으로 설명한다. 이 두 관점은 작품의 과장된 관현악과 자기인용이 영웅주의의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을
함께 다루는 방식을 보여 준다.

초연과 출판

Strauss는 1899년 3월 3일 Frankfurt Museum concert에서 직접 초연을 지휘했다. 악보는 Willem Mengelberg와 Concertgebouw Orchestra에 헌정되었고 , 초연은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

IMSLP의 서지에는 F.E.C. Leuckart가 1899년 Leipzig에서 낸 초판 총보가 기록되어 있고, 후대 Eulenburg 재판과 편곡 ·발췌판이 별도로 구분된다. 초판의 출판 정보와 후대 판본의 구역명 표기는 서로 다른 편집
층위에서 비롯된다.

소요 시간

자료에 따라 전곡은 약 40–50분으로 소개된다. New Jersey Symphony의 프로그램 노트는 40분, Wikipedia 는 약 50분으로 제시하며, 실제 연주는 템포와 판본에 따라 달라진다. 단악장 작품이지만 여섯 구역과 첫 정지 지점이 뚜렷하므로 , 공연 안내의 시간과 구조상의 경계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편성

피콜로 1, 플루트 3, 오보에 4(네 번째는 잉글리시 호른을 겸함), E♭ 클라리넷 1, B♭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1, 바순 3, 콘트라바순 1, 호른 8, 트럼펫 5(B♭ 3과 E♭ 2, B♭ 트럼펫 일부는 짧게 무대 밖에서 연주), 트롬본 3, 테너 튜바, 베이스 튜바, 팀파니, 심벌즈, 탐탐, 작은북 2, 테너 드럼, 큰북, 하프 2, 독주 바이올린, 현악기가 필요하다. 독주 바이올린은 별도의 협주곡처럼 노출된 역할을 맡지만, 작품은 협주곡이 아니라
관현악의 한 성부로 이 독주를 내부에 배치한다.

녹음과 수용

초연 직후부터 이 작품은 거대한 음향과 자기 과시의 문제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늦은 19세기 관현악의 색채 ·기교 ·다이내믹 범위를 새 기준으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설명하고, New Jersey Symphony의 해설은 전투와 자기인용이 만든 과잉이 이 곡의 수용을 갈라 놓았다고 정리한다.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아카이브는 Fritz Reiner와 악단이 1954년 RCA 녹음에서 지휘대 위 약 16피트에 단일 콘덴서 마이크를 걸어 악기군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 했다고 기록한다. 같은 기록이 인용한 Kenneth Morgan의 평가는 이 연주가 Strauss의 화려함을 살리면서도 질감을 투명하게 하고 절정을
폭발적인 과장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대편성 작품에서 음향 균형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했는지를
보여 주는 특정 녹음의 사례다.

ClassicsToday의 비교 평론은 Herbert von Karajan의 1959년 녹음을 장엄하고 느린 호흡으로, Rudolf Kempe와 Staatskapelle Dresden의 녹음을 목관의 성격과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구분한다. 이 차이는 어느
한 해석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여섯 구역과 자기인용을 서로 다른 음향 비율과 진행감으로 조직해 온 녹음사의 한 단면이다.

주요 자료

Boston Symphony Orchestra, Ein Heldenleben 해설

New Jersey Symphony, Strauss 프로그램 노트

Chicago Symphony Orchestra 아카이브, Fritz Reiner의 1954년 녹음

ClassicsToday, Karajan·Reiner 비교 평론

ClassicsToday, Kempe 녹음 평론

AllMusic, Rudolf Kempe 음반 정보